

대형 R&D사업 내년 1조1000억 투입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가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반조성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R&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산업기술 관련 R&D예산(1조660억원)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산업기술개발 예산은 7626억원 규모로 8.5% 증액됐지만, 산업기술기반 조성 예산은 3395억원으로 6.7% 감소했다. 내년도 산자부 R&D 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설비·시험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을 최고급 엔지니어 양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로 설비·장비를 구축토록 하는 산업기반구축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6.7% 감소한 반면 고급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게 되는 차세대성장동력·중기거점사업비는 증액됐다.

벤 처 이 슈

중앙일보



▲ 2004년 12월 2일 중앙일보 E6면

‘다시 벤처다’라는 제목의 기획시리즈를 〈모험기업이 희망동력〉, 〈벤처생태계 복원해야〉, 〈벤처 스타들의 제언〉 등 3부로 나눠 3일동안 심층 보도한 기획기사

한국경제



▲ 2004년 12월 6일 한국경제 A16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무역전시장에서 열린 2004 대한민국창업대전에 참가한 팀들의 열정과 관람객의 열기를 보도하고 수상내용을 정리한 기사

정통부, IT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계획 추진

한국 IT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9개항의 핵심과제로 구성된 ‘IT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계획(IT SMERP)’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방향을 건전한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업종·규모·성장 단계가 다른 IT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장관이 제시한 9대 과제는 ▲경영현황 DB구축 ▲전문협의회 구성 ▲공동서비스 발굴 및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단 운영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기술이전·평가체제 확립 ▲선진 IT 투자시스템 정착 ▲해외시장 개척지원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등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 기기, 부품, 디지털 콘텐츠, S/W 등 분야별로 총 76개의 전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소·벤처 기업간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기술개발 등 공동협력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내 109개 벤처, ‘아-태 500대 고성장기업’ 포함

다국적 컨설팅업체 딜로이트가 선정한 ‘2004 아시아-태평양지역 500대 고속성장기업’에 109개 국내업체가 포함됐다고 딜로이트코리아가 밝혔다.

딜로이트코리아는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지역 본사가 있는 홍콩에서 발표한 기업 명단에서 한국의 브이케이(6위), 웹젠(7위), 위트콤(8위), 엠택비전(14위), 토마토LSI(15위), 컴투스(19위) 등 6개 벤처기업이 상위 20위 안에 랭크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500대 기업 중 22%의 점유율로 중국(18%), 일본(16%)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체 1위는 호주의 전자네트워크회사 빌 엑스프레스가 차지했다.

전세계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세무, 재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로이트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 성장률을 기초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주도형 고성장 기업 500개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